

##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에포감의 효과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

이지호, 최성우, 김태윤, 변대규, 김진우, 김형욱, 김정원

에포감은 달맞이꽃 종자유에서 추출한 다량의 gamma-linolenic acid를 함유한 제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보조적 치료제로 보고되어 왔으며 그 기전에 있어서는 아토피 피부염환자에서 결핍되어 있는 gamma-linolenic acid를 공급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.

3개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이중맹검법으로 에포감과 위약을 소아(12세 이하)는 하루 160mg, 2회, 성인은 하루 240mg, 2회씩 12주간 투여하고 매 2주마다 홍반, 부종/수포/가피, 찰상, 인설, 태선화, 색소침착/탈색, 소양감,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각각 0~3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매 4주마다 전체 피부염의 체포 범위를 측정하였다. 또한 치료 전후로 혈액내 호산구, 총 IgE, 인지질 등을 측정하였다. 치료기간 중 8주까지는 작용시간이 짧은 항히스타민제와 1% 하이드로코르티손 연고의 사용은 허용하였으며 9주부터 12주까지는 모든 치료제의 사용을 금하였다.

114명 중 97명이 투약을 완료하였으며 약제의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. 전체 피부염의 체포범위는 에포감 투약군에서 대조군보다 치료 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( $p < 0.01$ ). 에포감 투약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치료후 상기 모든 증상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( $p < 0.01$ ) 이 중 소양감만이 에포감 투약군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다( $p < 0.05$ ).

이상에서 에포감은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보조적 치료제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.